

광주, 700조 K-반도체 '첨단 패키징' 허브로 뜯다

〈반도체 후공정〉

산업부, 광주-부산-구미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거점 공식 지정
패키징은 반도체 칩 포장해 기기에 연결 가능 상태로 만드는 후공정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에 3606억 투입... '합작 패키징 팝' 설립 추진

광주시가 정부의 700조원 규모 'K-반도체' 전략의 한 축인 '첨단 패키징' 산업거점으로 육성된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남부권으로 확장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따라 광주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로서 입지를 굳하게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 보고회'에서 광주시(반도체 첨단 패키징)를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와 함께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패키징'은 제조된 반도체 칩을 포장해 기기에 연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후공정 기술이다. 이 가운데 첨단 패키징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최대 숙원인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산업 육성의 전기를 맞게 됐다.

산업부는 이날 총 7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함께 비수도권 반도체 생태계 육성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광주의 '첨단 패키징', 부산의 '전력반도체', 구미의 '소재·부품'을 잇는 남부권 혁신벨트 구축이다.

정부는 광주에 있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앵커 기업과 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연계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메모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스템 반도체와 후공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광주에는 호재다.

특히 AI 구동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산업체 가치가 매우 높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에만

360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광주가 사실상 중심에 서게 된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소자 기업과 패키징 기업이 협작하여 운영하는 '합작 패키징 팝(공장)' 광주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인재 유입을 유도하고, 소부장 기업의 설비 투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통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칩 제조기업과 패키징 기업이 협력하는 '합작 팝(Fab)' 건설을 지원하고, 광주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학연 역량 결집을 위해 카이스트(KAIST)를 거점으로 지스트(GIST), 전남대, 한전공대 등을 연계한 '반도체 연합공대'도 구성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느냐 마느냐에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려 있다"며 "경쟁력이 다소 뒤처진 팝리스와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파운드리와 수요기업 등 가용한 모든 생태계를 연결해 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에는 인재 양성 방안도 포함됐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참여하는 '반도체 연합공대'를 구성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별 반도체 아카데미 실증센터와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력을 길러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이제 AI와 반도체를 양넓게 삼아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육성, 기업 투자 유치까지 시장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앞서 정청래 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호남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호남 쟁기기, 예산에만 그치지 않을 것"

광주 DJ센터서 현장 최고위 개최
"미래 성장동력 끝까지 책임" 표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광주에서 최고위 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호남 예산 확보 성과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는 '호남 중심' 국정 철학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

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송정역·목포역 구간 KTX 속도 개선 사업과 5·18 구묘역 정비, 적십자 병원 보존 등 시민 숙원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광주시민을 위한 면목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 확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진우(동남갑) 의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 (GGM)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대차를 설득해 2교대 근무가 도입된다면 당장 연말에 1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도움을 당부했다.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제안도 잇따랐다. 안도걸(동남을) 의원은 도심 집적형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전진숙(북구을) 의원은 '국가 AI 청소년 체험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조인철(서구갑) 의원은 "과거 포항에서 철강 산업이 시작됐듯 AI 산업은 광주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견줄 경쟁력을 갖추도록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이 대통령 "통일교 의혹 여야 관계 없이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치권의 통일교 논란과 관련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통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검토해봤느냐"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교육계 수장, 구속 갈림길에 서다 ▶6면

광주FC '거미손' 노희동 존재감 빛났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원주 삼례 시간여행길 ▶22면



전라 남도 관광재단

명가명인 남도한상

#대한민국 전통한정식 #명가명인 음식 체험 #미식과 함께하는 웰니스 투어

남도의 맛·문화·삶을
한상처럼 구성한 미식관광상품

* 전남 남서권 15개 시·군과 함께 합니다.
(목포/나주/담양/화순/장흥/강진/영광/함평/무안/장성/영암/해남/완도/진도/신안)